

포트홀 ‘누더기’

겨울 폭설·봄비에 곳곳 파여 운전자 화들짝... 사고 잇따라
올들어만 1만1419건 발생... 예산 부족에 보수작업 골머리
목표 보수량 8분의 1 그쳐... 땀질 처방 대신 선제 조치 필요

26일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교 일대 도로는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다. 지난 겨울 역대급 폭설이 내리고 최근 봄비까지 내리면서 도로에 5cm 안팎의 포트홀(도로 표면이 움푹 파인 곳)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이날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포트홀에 차량이 덜컥거리자 화들짝 놀라 속도를 줄이거나 핸들을 돌리거나 일췌였다. 포트홀을 피해야겠다며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려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같은 날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 보건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도 5cm 안팎의 포트홀이 차선을 따라 잇따라 발견됐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들이 포트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을 때마다 ‘덜컹’ 소리를 내며 요동쳤다. 보건대 학생 우모(29)씨는 “자동차뿐 아니라 평소 킥보드를 타고 다닐 때도 포트홀에 걸려 넘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았다”며 “광주시나 구청에서 빠르게 보수해 주거나, 포트홀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도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포트홀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관할인 폭 20m 이

상 도로에서 지난 2020년 1만 1820건, 2021년 1만 6166건, 2022년 1만 429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24일까지 벌써 1만 1419건의 포트홀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 2020년 241건, 2021년 1194건, 2022년 134건, 2023년 155건으로 꾸준하다.
폭 20m 미만 소형 도로를 관할하는 광주시 5개 자치구도 포트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 시내 구 관할 도로에서는 2020년 5237건, 2021년 9255건, 2022년 5037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26일까지 210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겨울에 뿌린 제설제가 노면을 부식시키거나 도로 내부로 스며든 빗물이 수축·팽창하면서 노면

몸살 앓는 광주 도로



26일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교에 있는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해 움푹 파여 있다.

강도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도로가 파손된다고 한다.
또 무거운 차량이 많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자주 급정거하는 곳,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안되는 곳 등에서도 포트홀이 자주 발생한다.

보수는 ‘하세월’

하지만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포트홀 상습 발생 지역 등을 미리 재포장하는 등 선제적 조치는 커녕 일일이 신고를 접수하고 땀질하는 등 후속 조치에 급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선제적 조치까지 하기에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77억원, 국비 25억원 등 총 102억원 예산으로 상반기 중 포장도로 관리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이중 52억원이 포트홀 등 소규모 파손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광주에서 관리하는 전체 도로 길이는 597km이며, 이를 1개 차로로 쪼개면 5000여 km까지 길어진다. 광주시 도로 포장 관리 주기가 6년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1년동안 850km의 도로를 보수해야 전체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목표 보수량의 8분의 1 수준인 100여km의 도로만 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연간 70억원 예산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는 100km정도가 한계이며, 목표 보수량을 채우려면 최소 780억원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 보니 도로가 웬만해선 크게 파손되지 않으면 보수 작업도 차일피일 순서가 밀리기 일췌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결국 광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5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광주 동구청은 관할 109km 길이의 포장도로 관리 예산으로 광주시보다 훨씬 적은 5억 4000만원만 편성했다. 서구청은 24억원(관할 포장도로 길이 197km), 남구청은 10억원(375km), 광산구청은 10억 7000만원(341km)을 편성했다. 그나마 북구청은 예산 69억 7200만원(375km)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춘식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한번 포트홀이 발생한 곳은 도로포장의 강도가 낮아진 상태라 땀질을 하더라도 포트홀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포트홀이 자주 생기는 지역을 특정해 고강도 아스콘을 포장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포트홀이 자주 생기는 곳에 안내 표지판을 세우는 등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경찰, 수백억대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혐의 적용 땀 재산 몰수 가능

경찰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무자본 갱투자로 수백억원대의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중인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4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을 전세사기 대응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40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5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한 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세기간 만료가 도래하면서 초기 400억원대인 피해 금액이 1000억원대로 증가함에 따라 공범들에 대한 혐의를 사기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변경의 주 이유는 전세사기범들의 재산 몰수 가능 여부이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법정형량의 변동은 없지만, 몰수·추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공범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면 주범에 대해서

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혐의가 적용되면 몰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조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은 혐의가 적용되면 바로 사기범들의 재산에 대한 보존정구를 하고 몰수·추징 가능 재산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회복했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이 있다”면서 “혐의 적용을 가능한 빨리 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잡종견, 순종으로 속여 비싸게 판 점주 송치

‘반려견 1억원대 사기 분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반려견 분양업체 점주가 이번에는 혼혈 반려견을 순종으로 속여 분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반려견 분양업체 점주 A(40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8월 ‘포뮬드 블레이’ 등 고급 견종 반려견 3마리를 순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에게 1500여만원을 받고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반려견이 성장하면서 점

점 순종과 다른 모습으로 자라자, 유전자 검사를 거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경찰은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분양한 반려견들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일부러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해외 애견 업체에 반려견 23마리를 분양한다며 계약금까지 받았다가 석 달이 넘도록 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리수술’ 남성전문병원 관계자 4명 기소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상에게 수술을 대리하게 한 남성 전문병원 의사와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광주에서 남성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병원 관계자에게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삽입술 등의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해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B·D씨가 수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는 B씨가 상담과 직접 수술을 하고 C씨가 보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한명 당 수술비는 400~1000만원 수준으로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수술 후유증을 앓던 환자가 경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환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출장·대질조사, 진료기록부 분석 등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밝혀냈다.
일부 환자는 수술 부위 염증 및 다른 장기로 세균 전이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재수술 등 추가 피해사례도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수술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대표적 민생 침해범죄로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200만원

허석 전 순천시장은 500만원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5월 30일에 열리고 허 전 시장 선고결과는 5월 11일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5월 30일에 열리고 허 전 시장 선고결과는 5월 11일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